

#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펀드 운영방안의 다각화<sup>†</sup>

Diversification on Fund Manage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Support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이석준(Suk-jun Lee)\*, 고희일(Hyoung-il Ko)\*\*, 정석재(Suk-jae Jeo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신성장동력펀드 확대 추진 전략 및 방안 |
| II. 주요 국가별 펀드 현황 및 사례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III. 신성장동력 펀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

## 국 문 요 약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 신성장동력펀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인큐베이터 펀드, 상생협력 펀드

\* 논문접수일: 2010.9.9, 1차수정일: 2010.11.22, 게재확정일: 2010.11.29

†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신성장동력 국제협력펀드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이며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lsj77@yonsei.ac.kr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hyoungil13@hamail.net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sjeong@kw.ac.kr, 02-940-5294, 교신저자

## ABSTRACT

---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s and economic crisis, nations across the world spare no efforts to identify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nd lift the domestic economy by promoting green technologies and tight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lso tries to create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s part of these efforts, it launched the New Growth Engine Fund in 2009, a private and public initiative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own promising new green technologies. However, it has a limitation on making investment in the fund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significant size of necessary capital investment and the difficulty of finding investment companies. The lukewarm response of the private sector arose a need to change the fund management method.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propose efficient strategies of managing various funds such as cooperation fu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cubator fund financed by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win-win cooperation fund for the government, large companies and partners as a means of developing and support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in a sustainable wa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lies with the proposition of various funds that can be used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strategic goal of develop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Key Words : New Growth Engine, Cooperation Fu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cubator Fund, Win-win Cooperation Fund

---

## I. 서 론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으로 환경 및 경제간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이다.(정봉현, 2009).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녹색시장 선도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문구 외, 2010).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의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황재연, 2009).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08년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돌파구로서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표 1〉 참고).

〈표 1〉 주요 선진국의 신성장동력 정책 동향

국가	신성장 동력 정책 내용	년도	참고문헌
미국	'그린' 뉴딜을 표방하는 녹색성장에 기반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대책 발표	2008	김주현, 2008
	New Apollo Project <sup>1)</sup> 는 미래경쟁력 확보, 제조업 부활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Clean Energy Project'를 계획	2008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상초유 8천억 달러규모의 지출법안(ARRA <sup>2)</sup> )	2009	이은민, 2009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을 발표(SET Plan <sup>3)</sup> )	2007	박수영, 2008
일본	신·국가 에너지 전략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골자로 하여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석유 의존도 저감 및 원유자원 개발 확대 등에 관한 국가전략을 공표	2006	도이치 츠토무, 2006
	Cool Earth 정책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감축'목표달성을 위한 5개 혁신 기술을 발표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세부 기술을 제시함	2008	오은주, 2009
중국	에너지 포괄 범령안을 통해 향후 에너지전략과 관리구도, 가격 메커니즘, 전략적 비축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법 의견 수렴안 발표	2007	손병호 외, 2006
	EU국가와의 협력정책으로 유럽 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연합위원회의 구성 및 연구프로젝트 실행계획을 수립(공통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술, 바이오 기술 분야를 포함)	2009	

1) New Apollo Project는 기후변화를 핵심 축으로 clean air, clean water, healthier communities, preserving our land 부문을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고객이 구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

국내도 “녹색·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신(新)국가발전”, “녹색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기여”를 위해 국가정책의 초점을 「녹색·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방향으로 맞추어가고 있다. 즉, 기존의 과학기술 및 산업에 국한된 신성장동력 확보, 환경·에너지 연구개발계획과는 달리 녹색·신성장 분야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9년 5월 한국정부는 11개 부처 공동으로 3대 분야 17개 녹색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전략회의<sup>4)</sup>’를 통해 이를 확정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창출 및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유망 신기술의 사업화·산업화 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녹색성장, 첨단융합 등 성장동력분야 신기술 사업화에 집중 투자하는 신성장동력펀드<sup>5)</sup>를 ‘09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펀드의 총 조성규모는 정부재원 1,100억 원으로 민간투자 5,400억 원을 유도하여 총 6,500억 원의 규모가 되었으며, 현재 총 5개 펀드가 결성완료 되었으며(결성을 100%) ‘10년 1월 26일 현재 조성 금액은 7,075억 원으로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2〉 참고).

〈표 2〉 ‘09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결성 및 운용사 선정 결과

(단위: 억 원)

구분	선정 운용사	펀드 조성금액				특이사항
		합계	정부출자	국내 민간출자	해외 민간출자	
녹색성장펀드	IBK/AUCTUS	1,490	300	1,190		
	KDB/대우증권	1,001	200	801		
첨단융합펀드	STIC Investments	3,100	200	1,450	1,450	4개사 470억 원 투자
	KTB투자증권/KFH	700	200	500		300억 원 증액 추진
바이오펀드	KB인베스트먼트/B&C	784	200	500	84	216억 원 증액 추진
계		7,075	1,100	4,441	1,534	

출처: 지식경제부, 2010 「2010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계획」 발췌

해 미국 내 제조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 ‘오바마의 산업정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VIP Report, 2008.

2)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년 2월 최종 승인된 경기부양 법안

3)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4) ‘경제제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본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경제제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를 2세션에서는 「09~13 재원배분 방향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

5) 지경부. ‘2009년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출자금 운영계획’. 한국기술거래소 출자 600억원과 민간 출자 2,400억 원으로, 운용사 3개 이내의 신성장동력펀드 선정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펀드조성금액,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 펀드 운용사의 노하우 및 경험 부재 등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 등으로 인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펀드 결성 지연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양한 해외 펀드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동 펀드가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2절에서는 주요 국가별 펀드 조성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신성장동력펀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4절에서는 펀드의 확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5절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 II. 주요 국가별 펀드 현황 및 사례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신성장동력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고, 자국 내 녹색·신성장동력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절에서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기후변화 분야의 발전을 위한 주요국들의 펀드 조성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녹색성장분야의 해외 펀드 조성 사례

네덜란드는 정부 주도의 그린 펀드 스킴(Green Funds Scheme)을 통한 녹색금융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녹색분야 유망 프로젝트를 녹색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펀드(Green Fund) 또는 녹색은행(Green Bank) 등이 저리의 채권을 발행하거나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녹색성장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현석원, 2009).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개발은행과 환경·에너지관리국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대출 보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노희진, 2009).

캐나다는 친환경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속개발기술펀드(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Funds; SDTF)를 운용하고 있으며, 55억 달러의 조성 규모를 활용하여 주로 친환경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김승래, 2009). 한편,

일본은 신약, 에너지 효율, 친환경산업분야 중심의 신기술, 특허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09

년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2,000억 엔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개정하고 관련 기업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2009).

## 2. 신성장동력 분야의 해외 펀드 조성 사례

미국은 국가경제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정부-Venture Capital(VC)-민간이 합동 출자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NISF(National Innovation Seed Fund)를 조성하였으며, 펀드매니저와 투자기업에 채원 및 서비스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자본금 4억 유로인, 유럽투자은행 61%, 유럽캐피탈 30%, 역내 금융기관이 9%를 출자하여 유럽투자펀드를 조성하였다. 이 펀드는 '00년부터 중소기업금융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사업, 벤처캐피탈 투자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펀드, 초기단계 펀드, 지역단위 펀드, 범유럽 펀드 등 취약 분야에 정부가 선도 투자하고 민간투자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며, 수년 내에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BT, NT, IT, 신소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유럽투자펀드는 기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를 지양하고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up>6)</sup> 형태를 갖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대출자산 유동화<sup>7)</sup>와 신용보험<sup>8)</sup>이다. 핀란드의 SITRA Fund<sup>9)</sup>는 국가 R&D를 장려하고 혁신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벤처캐피탈을 제공함으로써 핀란드의 경제번영을 촉진하고자 결성된 R&D 국가기금이다. 미국, 북유럽 및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국제투자(주식형 펀드 방식)를 통해 국제기술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 및 성공적인 신기업 운영 개발 및 전문지식의 상업적 활용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성지은, 2007). 대만의 경우, 과학 기술 고문팀은 '바이오 기술 발전 계획(生技起飛計畫)'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발전 기금에 앞장서 민간 합자로 600억 NTD(New Taiwan Dollar) 규모의 대형 바이오 기술 펀드를 설립하였다. 이 펀드를 통해 국가 발전 기금에서 40% 투자, 민간 투자 60%로 10년을 발전 목표로 세웠다. 제 1기 펀드 규모는 70억~100억 NTD이며, 민간 주도하에 전문적인 투자 평가단을 설립하고 투자 목표를 선정하였다. 대만 바이오 기술 산업의 2009년 생산 규모는

6)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개의 개별펀드를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는 상품으로 우수한 펀드를 선별해 복수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 효과를 통한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7)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자산에 대해 신용보강 및 유동화를 지원하여 혁신형 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

8)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사고발생시 50%까지 지원

9) Finnish Innovation Fund: 핀란드 혁신기금

1,500억 NTD(한화 약 6조원)로써 4년 안에 바이오 기술 산업의 생산 규모를 배 이상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10)</sup> 1999년 싱가포르는 하이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Technopreneurship 21(T21)을 발표하고 10억불 규모의 모태펀드인 TIF (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를 결성하였다. TIF는 정부 주도의 VC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해외 자본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홍콩과 함께 세계적인 VC의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최성모, 1999).

### 3. 기후변화 관련 해외 펀드 운용 사례

2007년 일본 정부는 Cool Earth Partnership이 발표된 이후 5년간 100억 달러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성 기금 중 20억 달러는 무상 원조 및 기술지원의 형태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원되며, 80억 달러는 차관 형태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 민간부문의 참여,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조운정, 2010). 독일은 International Climate Protection Initiative(ICPI)를 결성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의 주도 하에 1억 2천만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과 신흥 산업국가 및 동구권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ICPI는 탄소발생 억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6천만 유로 지원), 기후변화대응 방안 마련(6천만 유로), 종다양성의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양현모, 2009). 호주와 EU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각 Global Initiative on Forests and Climate(GIFC)와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GCCA)를 결성하였다. GIFC는 2007년 이후 향후 5년간 총 2억 달러의 기후변화 기금을 통해 개도국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GCCA는 최빈국과 소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 대화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8~10년 동안 5천만 유로의 기금이 책정되어 향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원석, 2009).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펀드 조성 사례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기후변화 현상이 향후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간 공통이슈인 녹색·신성장 체제 수립,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한 녹색산업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둘째,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펀드조성에서 과학기술·산업 부흥을 위한 하이테크산업, 신기술·특허기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기술정책과의 긴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펀드 조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산업전반의 육성 및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전략적

10) 자료: 대만, 바이오 기술 산업 향후 3000억 NTD (한화 12조원)규모로 발전.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2009.

발전을 위하여 운용자금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 증대<sup>11)</sup>를 기반으로 국가 간 다국적 협력 및 투자지역의 다각화에 의한 글로벌 펀드 구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 III. 신성장동력 펀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1. 국내 신성장동력 펀드의 문제점

한국 정부도 '09년 1월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술기반의 글로벌 중견기업 창출·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 펀드를 조성 및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펀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펀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녹색산업 펀드 규모의 경우 설정액이 1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종류형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기수익추구형 펀드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에 녹색금융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 녹색기술 또는 산업에만 자금이 집중되는 편중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녹색성장 분야가 신기술 기반 신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이후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투자기관은 장기간의 기술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관심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국내펀드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적 수익 추구를 위한 대기업 중심의 투자자산 구성으로 인해 일반펀드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면 현대차를 녹색성장주로 인식하는 식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LG화학 등 대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성장녹색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 획득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성장단계에서 재무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녹색산업에 대한 노하우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투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노하우 및 명확한 선별기준이 없으며, 금융권이 녹색기업 및 기술을 심사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11) 자본의 유동성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은 우선 국제적 상호의존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정진영,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 국가의 정책자율성, 국제협력: 세계금융의 정치경제에 관한 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36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pp.91.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로 인해 투자 자금을 공급할 만한 기업을 선별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문성을 보유한 관리기관의 체계적인 펀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녹색금융 상품 설계를 위한 녹색금융 지수도 없을 뿐 아니라 환경관련 DB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체계 또한 확립되지 않았다. 더구나 환경부문과 금융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녹색금융에 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기술 기반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체계적 발굴 및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펀드운용기관이 부족하여 신성장동력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성장동력펀드를 통해 지원 받은 기업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 사업 및 마케팅 전략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 KOTRA 주관하의 “해외 지사화 사업”, KIAT 주관하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무능력 중심의 투자 기업 선별에 따라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지원 전략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투자 대상 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유인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시장 창출, 글로벌 시장 진입의 과정에 따른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반면, 이를 담당할 전문펀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을 동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국내 펀드의 확대 및 개선 필요성

신성장동력 3대 분야를 토대로 녹색성장,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등 3대 투자 영역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문 투자펀드로 구성된 신성장동력펀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신성장동력펀드를 통해 녹색분야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펀드 규모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에 국한된 단일 부처 예산으로 출자되는 신성장동력펀드의 규모만으로는 국가 전략과제로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동시에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정부 출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Boom-up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 방식의 측면에서도 PEF(private equity fund)<sup>12)</sup>방식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12)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할 목적의 투자

블라인드 펀드의 성향을 띄고 있는 신성장동력펀드의 특성상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 모델이 미흡하다. 따라서 신성장동력펀드는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글로벌 협력(global cooperation) 등 다양한 기술혁신 스킴(scheme)을 반영할 수 있는 펀드 스킴(fund scheme) 형태로의 변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성장동력펀드와 더불어 국내 민간 자금 및 해외 자금을 포괄할 수 있는 조성규모의 대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신성장동력펀드를 범부처 관련 기금을 포괄하는 녹색·신성장 펀드로 확대 재편하여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주도할 정책적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정책적/기술적/산업적 노력을 감안할 때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 협력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조기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위의 개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기존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신성장동력펀드의 모태를 가지는 특성화되고 변형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국가 및 기업과의 협력, 해외 우수기업의 M&A 등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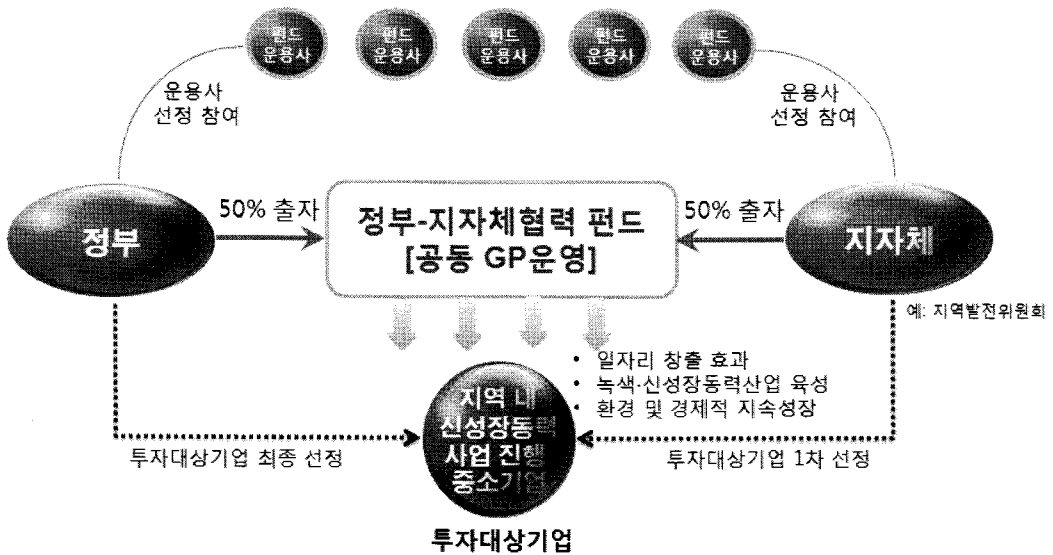
#### IV. 신성장동력펀드 확대 추진 전략 및 방안

신성장동력펀드를 통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선진 금융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신성장동력펀드의 운영이 투자 목적과 범위에 따라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금융지원 제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성장동력펀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성장동력펀드의 확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장에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신성장동력펀드의 확대 추진을 위한 세 가지 금융지원 제도인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를 제안한다.

### 1.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최근 지자체 중심의 지역개발 전략과 맞물린 녹색단지조성계획이 급증하는 등 정부 주도의 녹색·신성장 사업투자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성장가치가 높은 기업의 발굴 및 지원,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등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up>13)</sup>. 실제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자체의 산업육성정책 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며, 지자체 산업육성정책의 경우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사업진행 및 성과달성에 많은 애로점을 보이고 있다<sup>14)</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공동 출자를 통해 지자체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지자체<sup>15)</sup>협력 펀드’를 제안하며, (그림 1)은 동 펀드의 개념도이다.



(그림 1)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개념도

현재 신성장동력 정책은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총 6개 분야 20개 과제들로 진행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

13) 대구: 카본프리솔라시티 프로젝트, 춘천: 카본뉴트럴시티 단지 조성

14) 경기도: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사업 진개를 위한 녹색성장 펀드 추진 중

15) 동 펀드에서 제시한 지자체로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의미함

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육성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자체의 신성장동력 사업진행 및 성과도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분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성된 펀드가 투자할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정부-지자체협력 펀드’는 지자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정부-지자체 간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지자체의 중소기업이 사업기회 확대를 통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이다. 둘째, 지자체의 산업육성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기구축 인프라의 활용도 및 성과도출 극대화한다. 셋째,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 내 녹색·신성장 육성정책과 연계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다. 넷째, 지역 내 환경 및 경제적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투자활동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자체의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동투자를 유도한다. 투자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방안은 아래와 같다.

- 지자체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정책<sup>16)</sup>과 부합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을 1차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으로 선정
- 정부는 1차 선정된 투자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여 사업진행 및 성과도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하여 최종 선정

정부-지자체협력 펀드의 운용 구조는 PEF를 기본으로 하지만 유한회사<sup>17)</sup>, 신기술사업투자조합<sup>18)</sup>,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sup>19)</sup> 등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펀드임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공동 GP를 운영한다. 펀드 운용사 선정 시 국내 금융기관의 PEF 운용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이를 위해 <표 3>과 같이 금융기관별 PEF

16) 산업육성정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도 산하의 지역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기대

17)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음

1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용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운용관리, 신기술사업자의 매출채권 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 이상)동안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후 그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해산을 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투자재원 조달수단임. [출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운용 능력의 장·단점(양현모, 2009)을 고려한다. 출자금 납입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시납과 분할납을 허용하는 수시납<sup>20)</sup> 방식으로 하며, 출자금 마감 방식은 추가증액방식을 허용한다. 기준 펀드규모와 추가증액은 양주체 합의 하에 설정하며, GP 출자비율은 Market Practice에 맞추어 펀드 총 결성규모의 1%~5%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출자금액을 50:50의 비율로 출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 출자금액을 낮추어 주는 대신, 손실 총당에 있어서 지자체가 우선 총당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펀드결성기한은 펀드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손실총당과 성과배분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결정한다. 펀드 운용사의 의무사항은 핵심인력 및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기업 Value Creation 방안 제시하고 주요 투자자에 대한 정기 Reporting 등을 제공해야 한다. 펀드운용사는 투자대상기업이 해당지역에서 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value)가 증대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업 추진체계는 정부 주관부처가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체의 정책수행 관리 기관은 펀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펀드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수립, 관련 규정 검토, 예산 및 공고문 검토 등 전체적인 사업 Frame을 설계·관리하며<sup>21)</sup>, 펀드 관리 기관은 펀드선정, 사후관리 등 실무 담당, 주요사항 결정을 위해 운용委(임기제), 심의委를 구성·운영한다. 운용위원회는 펀드 관련 연간 ‘운용계획’, 제반 운용요령 등 펀드 운용상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심의위원회는 펀드운용사 선정, 펀드운용사 제재, 운용성과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3〉 국내 금융기관의 PEF 운용 능력의 장·단점

	운영주체별 장·단점
은행	장점 - 기업구조조정의 노하우와 풍부한 기업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금공급력이 강함 단점 -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운용경험이 부족하고 M&A 노하우 부족
증권사	장점 - 간접투자상품과 M&A에 대한 노하우 보유 단점 - 기업구조조정 경험이 없고 자체적으로는 자금 부족
자산운용사	장점 - 간접투자상품의 운용경험 단점 -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M&A의 경험이 없음
보험사	장점 - 자금공급력은 비교적 강함 단점 - 간접투자상품의 운용경험과 M&A의 노하우가 부족하며, 현 제도상 비 금융주력자로 분류되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사의 경우 참여자체가 어려움

20) 수시납(capital call): 펀드결성 시 출자자별로 납입할 총액을 결정하고, 실제 납입은 투자진척도, 향후 자금소요 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방식

21) 필요 시 펀드운용사 선정을 비공개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가능

2009년 프랑스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거대 국채 준비 위원회(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에서 향후 20년간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산업의 미래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향후 가장 빠르고 높은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분야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프로젝트 중 '그랑파리, 미래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0년 계획' 프로젝트는 일드프랑스(Île-de-France)를 아우르는 도시들<sup>22)</sup>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유망산업을 접목한 산업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역 단체들은 신지식산업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영상이미지산업의 메카를 표방하고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산업을 타깃으로 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실리콘벨리'를 표방하여 첨단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으로 과학기술 및 친환경산업기술의 R&D분야 육성을 위해 유수학교, 기업, 연구소를 대거 입주시키으로써 신규고용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중소기업 및 기타 기관들의 육성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김은경, 2009).

## 2.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녹색신성장펀드가 최적의 운용 형태라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풍부한 기업 및 금융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 공급력이 강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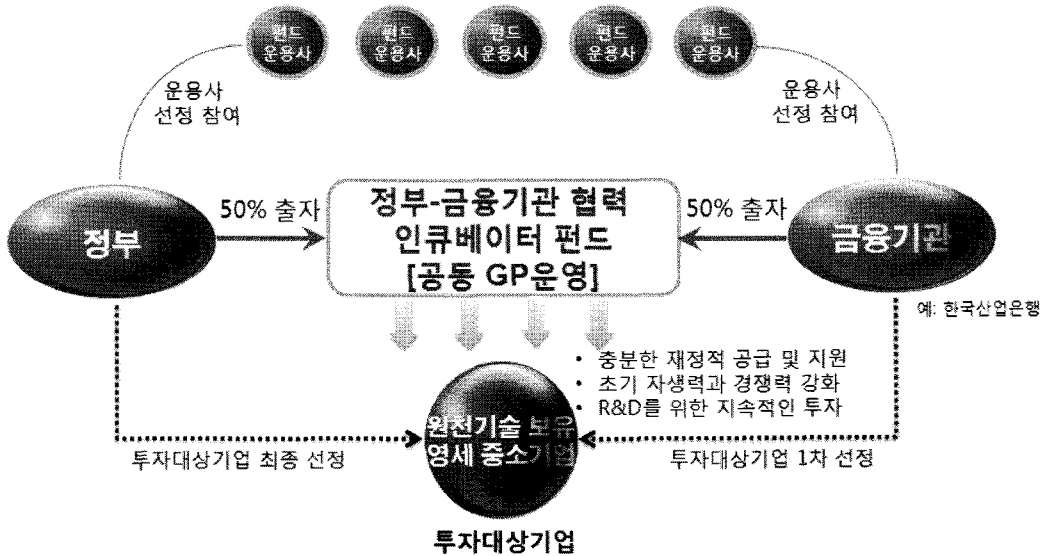
따라서 금융기관이 정부의 투자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인 정부와 금융기관<sup>24)</sup> 간의 합자투자를 통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란 녹색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sup>25)</sup>. 따라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는 녹색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문적 기업을 육성하여 녹색 및 신성장동력 관련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 및 정착을 목표로 하며, 동 펀드의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22) La Plain-Saint-Denis 지역, Le Defense 지역, Saclay 지역, Paris Sub 바이오 기술 특화 지역

23) 오테형, PEF 제도의 도입과 한계점, 손해보험 통권 제438호, 2005.

24) 동 펀드에서 제시한 금융기관은 산업자금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공업은행을 의미함

25)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사례를 들 수 있음



(그림 2)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동 펀드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녹색·신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신성장동력 관련 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둘째,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초기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충분한 재정적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이 펀드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투자수익을 배제하고 오로지 R&D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함으로써 주요 투자자로서 충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넷째, 동 펀드는 금융기관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므로, 투자기업을 선정 및 평가하는데 금융기관의 역할 및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1차적으로 기업 선정을 위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차 선정된 투자대상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의 진행 및 성과의 극대화 여부를 평가·심의하여 최종 투자대상기업들을 선정한다. 금융기관의 펀드 조성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금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정부의 우선 손실 추당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용구조에 있어서는 앞서 제안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와 유사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펀드임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펀드 운용사를 선정<sup>26)</sup>하고 공동 GP를 운영한다.<sup>27)</sup>

26) 금융기관이 펀드운용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됨

27) 출자금납입방식, 출자금마감방식, 기준펀드규모, GP 출자비율, 펀드결성기한, 손실추당, 성과배분, 펀드운용사의 의무사항, 펀드운용사, 사업 추진체계, 운용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용 방식은 '정부-지자체협력 펀드'와 동일

이스라엘의 경우, 수석과학관실(OCS: 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sup>28)</sup>을 R&D 투자 지원 사업추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 R&D펀드 운영과 신생기업(Start-Ups)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중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신생 기술기업에 2년간 최대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85%(최대 60만불)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나머지 15%는 민간투자<sup>29)</sup>로 충당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매출액의 3~3.5%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며, 로열티 최대금액은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총 26개의 인큐베이터가 운영<sup>30)</sup>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올해까지 이 중 21개 인큐베이터를 민영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정재영, 2001).

### 3.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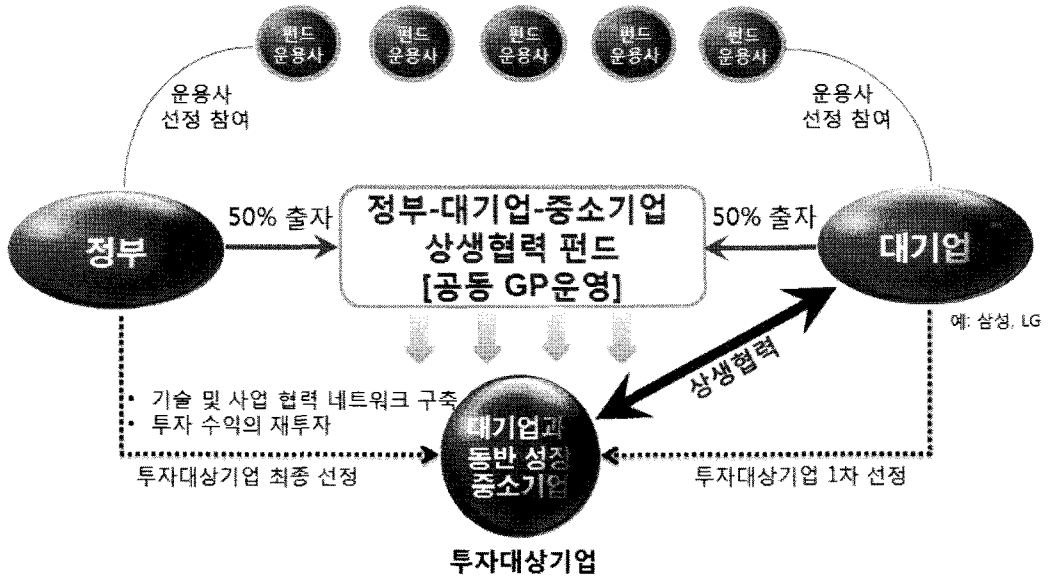
국내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수직계열화가 일반화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공적인 핵심 드라이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수요시장 개척에 따른 시장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가 필요하다. (그림 3)는 동 펀드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신사업 투자를 유인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재 국내 대기업의 녹색 분야 신사업 진출현황을 <표 4>에서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대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따른 협력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녹색·신성장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출자하는 수요처인 대기업은 일반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지도 및 지원을 담당한다. 셋째, 투자대상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또는 협력이 유망한 녹색신성장동력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집중한다. 넷째, 정부는 인큐베이터 펀드 운용 방안과는 다르게 IPO, M&A 등으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일정기간 동안 펀드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유지한다.

28) 이스라엘 정부의 하이테크기업 및 산업 R&D분야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실행 기관으로, 기술발전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69년 설립됨

29) 2009년 기준 총 예산액은 3.5백만불임

30) 현재 26개의 인큐베이터가 지원 중인 프로젝트는 200여개로, 이들 인큐베이터에 투자한 Venture Capital은 총 15개임





(그림 3)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

<표 4> 주요 대기업의 녹색분야 신사업 진출현황

대기업	신사업
삼성	태양광 발전, 친환경 휴대전화, LED조명, 리튬이온전지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LG	태양광 발전, LED조명,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스템, 하이브리드차용 대용량전지
SK	리튬전지, 수소에너지, 대체연료
포스코	발전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발전, 폐플라스틱 연료화
현대중공업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
두산	풍력, 연료전지
효성	고효율 전동기
한화	태양광 전지, 폴리실리콘
웅진	태양전지용 잉곳, 폴리실리콘

\* 보도자료 집계 (2009. 2)

펀드의 운용 구조면에서는 앞서 소개된 펀드와 큰 차이는 없으나, 정부와 대기업 간의 협력펀드임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공동 GP를 운영하는 형태가 필요하다.<sup>31)</sup>

31) 출자금납입방식, 출자금마감방식, 기준펀드규모, GP 출자비율, 펀드결성기한, 손실충당, 성과배분, 펀드운용사의 의무사항, 펀드운용사, 사업 추진체계, 운용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용 방식은 앞에서 제시한 두가지 펀드와 동일

범윤전자는 대기업인 삼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화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거듭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 LG 등의 국내 대기업에서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과 같은 세계적인

〈표 5〉 국내 신성장동력펀드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펀드들의 출자조건 비교표

구분	신성장동력펀드(기존)	정부-지자체펀드	정부-금융기관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펀드
최초 펀드결성 규모	1,000억원	500억원(정부와 지자체 5:5 비율 출자)	300억원 이상(정부 20%이내, 금융기관 80%이상)	대기업 출자 규모에 따라 유동적(대기업이 총 출자금액의 50%이상)
출자금 마감 방식	추가 증액 방식 허용 (Multiple Closing)	추가 증액 방식 허용 (Multiple Closing)	추가 증액 방식 허용 (Multiple Closing)	추가 증액 방식 허용 (Multiple Closing)
출자금 납입 방식	수시납(Capitalcall) 원칙 (일시납, 분할납(Draw-Back) 허용)	수시납(Capitalcall) 원칙 (일시납, 분할납(Draw-Back) 허용)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원칙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원칙
GP 출자비율	펀드 결성금액의 1% 이상	Market Practice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5%이내 결정	Market Practice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5%이내 결정	Market Practice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5%이내 결정
펀드 결성기한	존속기간 (8년, 2년 연장가능) 투자 기간 (4년, 1년 연장가능)	기본 10년으로 하고, 지자체 요청시 15년 연장 가능	기본 5-7년으로 하고,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금융기관과의 협의)	기본 5년으로 하고, 최대 10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가능)
우선 손실충당	출자 지분율에 따라 손실충당	정부 출자금 우선 충당	정부 출자금 우선 충당	정부 출자금 우선 충당
성과 배분	출자 지분율에 따라 성과 배분	출자 지분율에 따라 성과 배분	출자 지분율에 따라 성과 배분	출자 지분율에 따라 성과 배분
투자 대상기업	신성장동력산업(녹색성장,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분야)를 영위하는 기술기반의 글로벌 중견기업	해당 지자체 내의 우수기업 발굴(지자체가 1차 투자대상기업 선정권 부여)	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 보유 기업 발굴 및 지원	수요대기업 협력 중소·벤처기업과 협력이 유망한 신기술 벤처기업
펀드 운용사의 의무사항	대표펀드매니저 및 전담조직 보유 투자기업 Value Creation 방안 제시 주요 투자자에 대한 정기 Reporting	지자체에 대표펀드매니저 및 전담 조직 결성 권한 부여	금융기관에서 투자 대상 기업 결정 권한 부여	대기업에서 투자할 잠재대상 기업 결정 권한 부여
운용 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 산학연전문가로 구성 운용계획 심의, 신성장동력분야 확정	정부 실무책임자와 지자체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유사관련 기관), 지역발전연구소 전문가로 구성 운용계획 심의, 투자대상분야 확정	정부 실무책임자와 금융기관 펀드담당자로 구성 운용계획 심의, 투자대상분야 확정	정부 실무책임자, 대기업 펀드운용담당자로 구성 운용계획 심의, 투자대상분야 확정
심의 위원회	KIAT 실무 책임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지침 및 평가기준 제정 및 개정, 제재 조치, 신성장동력분야 해당 여부 심의	지자체 장, 정부 관련기관장, 지역발전연구소장으로 구성 지침 및 평가기준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장, 정부 관련기관장, 금융투자협회장으로 구성 지침 및 평가기준 제정 및 개정	대기업 CEO, 정부 관련기관장, 산학연전문가로 구성 지침 및 평가기준 제정 및 개정

기업까지 거래처를 확대함으로써 급속한 매출증대를 실현하였다(성연주, 2009).<sup>32)</sup> 이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더 많은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펀딩 또한 강화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신성장동력펀드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부-지자체펀드, 정부-금융기관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펀드를 구분할 수 있는 주요 출자 조건들을 <표 5>에서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의 신성장동력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녹색신성장원천기술이 조기 정착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된 국내 신성장동력펀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현재 신성장동력펀드는 당초 목표로 했던 펀드결성 금액을 상회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신성장동력 분야에 맞춤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성장동력펀드의 보다 다각화된 금융지원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세 가지 형태의 전문화된 펀드운영 전략을 제안한다. ‘정부-지자체협력 펀드’를 통해서도 지자체가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역육성, 산업특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관과의 합자투자를 통한 인큐베이터 펀드는 단기적인 수익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녹색신성장 원천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이 기술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이 미래 신성장동력의 선도 국가로서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펀드는 국내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글로벌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및 기술이 세계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성장동력펀드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및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으로 국제협력펀드 조성 방안 및 협력국가 선정을 위한 체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32) 2009년 범용전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참고문헌

- 김문구 (2010), "IT 융합의 국내외 동향 및 국내 산업역량 강화방향", 김문구 외 2인 공저, 「전자통신동향분석」, 25(1) : 1-10.
- 김승래 (2009),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김은경 (2009), 「프랑스 대수도론: 그랑파리(Le Grand Paris, 大파리) 전략」,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김주현 (2008), 「오바마의 산업정책, New Apollo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노희진 (2009), 「녹색금융의 발전 방향과 향후 해결과제」, 서울: 한국예탁결제원.
- 도이치 츠토무 (2006), 「에너지 안전 보장과 신·국가 에너지 전략」, 서울: 전기협회.
- 박수익 (2008), 「KIER 기술개발 및 성과관리 전략 연구」,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성연주 (2009), 「차스닥, 중국 또 하나의 시장」, 서울: 대신증권.
- 성지은 (2007), 「핀란드 혁신체제의 전환과 혁신정책 및 과학기술행정체제」, 서울: 한국정책 지식센터.
- 손병호 (2006), 「주요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분석 및 시사점: 미국, 일본, EU 및 중국을 중심으로」, 손병호 외 2인 공저,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양현모 (2009), 「기술금융 증기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서」,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오은주 (2009), 「녹색성장전략과 지역의 발전전략-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 이은민 (2009), "미국 경기부양법 ARRA of 2009의 주요내용과 동 법안에 포함된 IT관련 투자", 「정보통신정책」, 21(5), 74-79.
- 정봉현 (2009), "녹색성장과 친환경적 항만 관리정책의 방향: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 연구」, 3, 88-112.
- 정재영 (2001), 「이스라엘 벤처기업 창업 성공사례와 성공요인 조사분석」, 서울: 정보통신부.
- 정진영 (1997),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 국가의 정책자율성, 국제협력: 세계금융의 정치경제에 관한 한 시론", 「한국국제정치학회」, 36(3), 83-104.
- 지식경제부 (2010), 「2010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계획」
- 조윤정 (2010),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국제학원우논집」, 7집, 175-192.
-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2009), 「GREEN IT 사업화의 핵심전략」, 진한엠엔비.

- 최성모 (1999), 「과학기술정보 공유와 유통을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최원석 (2009), 「호주 정부, 기후변화대응책 구체화」,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현석원 (2009), “환경요인 따라 대출 좌우된다”, 「THE BANK」, 667, 22-29.
- 황재연 (2009), “전남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진흥전략”, 「전남비전 21」, 58-78.

### 이석준

---

연세 대학에서 산업공학 박사과정 중이며, 관심분야는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금융시장, 금융파생상품 등이다.

### 고형일

---

광운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과정 중이며, 관심분야는 기술금융, 기술경영, 기업재무, 금융파생상품 등이다.

### 정석재

---

연세 대학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급망 경영, 기술사업화, 지식경영 등이다.